

대한 양계협회

소식

생산성 향상 전국순회강습회 개최

전주, 천안, 부산, 안양에서



본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국순회강습회를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전주, 천안, 부산, 안양에서 개최하였다.

미국 메리랜드 대학 루이스 카 교수를 강사로 “채란계사의 시설자동화와 생산성 제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루이스 교수는 채란계시설 전문가로서 강습회를 통해 채란계사의 시설, 단열, 계분처리 등에 관한 폭넓은 이론을 제시하였다.

루이스 교수는 최근 개발되어 있는 각종 시스템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으므로 기종을 선택할 때는 기계제작회사의 애프터서비스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신고로 적용할 수 있는 농지범위 확대건의 전업양계업 7,200㎡ 필요

본회는 입법에 예고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해 신고로 전용할 수 있는 양축시설의 농지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입법에 예고된 농발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가의 양축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에 게 신고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3,30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육성키로 한 전업농 규모가 3만수는 되어야하므로 3만수 시설에 최소 7,200㎡는 소요된다. 따라서 3,300㎡는 전업양계농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면적범위를 7,20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생산자 중심의 육계계열화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예정 4월26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본회는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계열화체계의 정착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산자 중심의 육계계열화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오는 4월26일 오후2시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오봉국 박사의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가 “생산자 중심의 육계계열화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주)대경 정용길 사

장이 “육계계열화 운영 및 생산자의 의식구조”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하노버 국제양계산업전시회 시찰단 모집 네덜란드 선진양계장 견학도 겸해

본회는 하노버 국제양계산업전시회 및 네덜란드 선진양계산업 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

독일 하노버에서 오는 6월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전시회와 채란계, 육계농장 등을 시찰할 이번 시찰단 모집은 6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명내외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여행기간은 6월26일부터 7월4일까지 8박9일간이며, 여행비용은 194만원이다.

여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월 일	지 역	교통편	일 정
6.26(수)	서울/파리	KE901/1240	김포공항출발, 파리로 착후석식 호텔숙박
27(목)	파 리	전용버스	파리시내관광
28(금)	파리/하노버	전용버스	전시회참관
29(토)	하 노 버	전용버스	전시회 참관
30(일)	하노버/ 암스테르담	항공편, 전용버스	육계농장 방문
7.1(월)	암스테르담	전용버스	채란농장 방문
2(화)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항공편, 전용버스	오전 프랑크푸르트 시내 관광
3(수)	프랑크푸르트	KE906/1410	프랑크푸르트 출발
4(목)	서 울	1040	김포공항 도착

양계산물 유통구조개선방향 제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실무작업단에

본회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실무작업단에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통구조개선 실무작업단은 농산물 유통의 실태

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유통구조개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정부내에 설치한 기구이다. 실무작업단은 5월까지 각계의견을 수립하여 6월중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회에서 양계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회 의견은 닭고기는 점진적인 계열화생산에 의한 유통체계 개선으로 생계수집상과 도매상을 배제하고, 통닭 거래를 위한 도매시장제의 도입운영으로 도매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닭고기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종계사료 큰폭 증가

3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질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하이출하시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15% 정도 폐사가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 후기사료 생산이 크게 감소되고 있어 실제 육계생산량은 입추수수에 비해 상당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전기사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달전부터 종계사료 생산이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육계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4월 하순부터는 육계시세가 약세로 전환하리라 예상하였다.

한편 육계분과위원회에서 주제로 하는 “생산자 중심의 육계계열화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이 오는 4월26일로 확정됨에 따라 많은 생산자들이 참석하여 양계산업 발전과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91년 제1차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 5월24일, 민경두병아리감별학원에서

본회는 91년 제1차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을 오



는 5월24일 민경두병아리감별학원에서 개최기로 했다.

갑종과 고등감별사로 나뉘어 실시되며 응시접수 기간은 3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이다. 응시원서는 본회 총무부에서 배부하며 응시료는 갑종 1만5천 원, 고등 2만원이고, 시료대는 갑종 6만원, 고등 17만원이다. 자격시험 결과는 시험당일 발표하고 추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총무과로 문의바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후장기제도 개선 노력키로

3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4일 가축위생연구소 대강당에서 양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심포지엄이 끝난뒤 개최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2중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2중시세는 후장기제도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후장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세가 지방시세 보다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중국에서 GPS와 PS 7백만수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금년 후반기에 이로부터 계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생산이 급증될 중국의 계란이 수입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대한 대응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91 계군혈청검사 실시

본회는 '91년 사업계획에 의거, 계군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혈청검사를 시행중인 농장은 다음과 같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기 바란다.

(1991. 3. 31 현재)

농 장 명	성 명	농 장 명	성 명
고 창 양 계	신 홍 종	홍 일 종 계 장	안 승 식
신 진 농 원	손 종 현	제 일 종 계 장	김 동 우
강 남 종 계 장	한 재 권	한 협 축 산	박 준 영
풍 전 종 계 장	남 광 풍	우 화 종 계 장	김 교 석
기 성 농 원	이 성 희	중 원 농 원	배 선 채
기 름 농 원	이 형 성	이 천 축 산	지 덕 호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한국가금학회와 공동으로



본회는 지난 14일 가축위생연구소 대강당에서 「양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을 가금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축산시험장 정선부 박사가 “양계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 미국 미네소타대학 Shoffer 박사가 “채란계와 육용계 개량현황과 전망”, 미국 메리랜드대학 Lewis 박사가 “채란계사의 시설자동화와 생산성 제고”,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박사가 “양계산물의 안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정선부 박사는 우리나라 양계생산비는 외국에 비해 인건비와 사료비가 높다고 분석하고 사양관리 개선, 기계화 등으로 생산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입개방에 위축되어 있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네덜란드 양계기술세미나 개최 4월8일 조선히텔에서

본회와 네덜란드 농림수산부는 오는 4월8일 조선히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네덜란드 양계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케이트라르스 박사가 “네덜란드 양계산업의 기술적 발전” 팜테크사 반데어비

어 사장이 “계란생산에 대한 최신기술”, 판콤포스 크레이머스 부사장이 “계사의 환경관리”, 모바사 안센 부장이 “자동GP기의 효용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가 끝난 후 양국간 정보교환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피로연을 하게 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개최 신임 김정룡 축산국장과 간담회까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전동용)는 지난 3월18일 오후 7시 만리장성에서 각 축산관련 단체장 및 축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축산국장과 상견례식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국장이 UR과 관련하여 협상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 우리나라 축산업계가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전 축산업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앞으로는 수입개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상호 협조하는 방향으로 자주 만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교환하기로 하였다.

전북지부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91년 사업계획 수립

본회 전북지부는 지난 3월5일 전주 목화예식장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90년도 업무실적 및 수지예산 결산보고와 91년도 업무계획 및 수지예산(안)심의가 있었다. 총회에서 결정된 전북지부 91년 사업계획은 △양계산업 안정대책 △중계확인 및 검사 △기술지도 및 간행물 보급 △양계산물 소비촉진 등을 확정했다.